



마음을 나타내요

◆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살펴보고, 나의 마음을 나타내어 봅시다.

그림을 보고 연우의 마음은 어땠을지 이야기해 봅시다.

연우야, 무겁지?
내가 들어 줄게.

망친 그림

할아버지께서 어린이날 선물로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사 주셨다.
크레파스를 선물로 받아 마음이 하늘을 날 것 같았다.

나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공원에서 재미있게 놀았던 모습을 그렸다. 색
칠을 하려는데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셨다.

심부름을 마친 뒤에 방으로 왔다. 나는 기질을 할 뻔했다.



새 크레파스는 부러져 있고, 세연이가 스케치북 여기저기에 줄을 긋고
있었다.

“야!”

나도 모르게 세연이의 머리를 때렸다. 동생은
큰 소리로 ‘앙!’ 하고 울었다.

아빠가 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오
셨다.

“지연아, 동생을 왜 때리니? 다시 그리면 되지!”

아빠한테 엄청 혼났다. 세연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혼났는지 모르
겠다. 밤에 잠도 오지 않았다.





1 「망친 그림」을 읽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시다.

1 '나'는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을 받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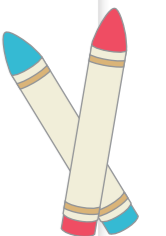
2 '나'는 동생을 왜 때렸나요?

3 '나'가 '밤에 잠도 오지 않았다.'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?

2 '나'의 마음이 어땠는지 말해 봅시다.



3 「망친 그림」의 '나'가 되어 아빠께 마음을 전하는 그림을 그려 봅시다.



4 친구들과 재미있게 「어찌지」를 읽어 봅시다.



어찌지

방귀를 뽕 끼어서
친구들이 웃을 땐 어찌지?
하하하, 같이 웃고 앉아 버리지.

잘난 척 어제 한 말이
부끄러울 땐 어찌지?
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
머리를 감아버리지.

그런데
철이 일기장에
내 잘못이 적혀있을 땐
어찌지, 어찌지?

5 「어찌지」의 ‘나’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일을 떠올려 보고 보기에서 한 가지를 골라 이야기해 봅시다.

보기 창피하다 부끄럽다 걱정스럽다

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lines for a student to write their response.



배움 다지기

-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살펴보았나요?
-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되어 ‘나’의 마음을 전하였나요?

